

# 꽃무릇 물결 속 펼쳐진 문화 축제

## 선운사 9월 19일 동백연, 20일 선운문화제 성료

꽃무릇의 물결로 장관을 이룬 고택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대규모 축제 한 마당이 펼쳐졌다.

선운사는 9월 20일 선운사 경내 일원에서 제7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구름속에서 듣는 깨달음의 소리'라는 주제로 올해 7회째 맞는 선운문화제는 해도 스님 사진전을 시작으로 지난 꽃무릇 시화전, 서각전시회, 지장보살 특별전, 부도전 다례제, 보은염 이운식에 이어 정음스님, 슬기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진행됐다.

선운문화제는 먼저 부도전에서 전국 차인연합회 회원 60여명이 역대 조사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육법공양과 다례제로 문을 열었다. 이어 만세루에서는 법만 스님과 일반 탐방객의 대화마당이 열렸다.

또 1500년 전 양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알려준 선운사 창건주검단 스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해마다 양질의 소금이 생산되는 불과 가을이면 절에 소금을 공양한 것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보은염 이운식'이 탐방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지장보살 특별전이 열려 불자들의 발길이 이



9월 20일 열린 제7회 선운문화제 보은염 이운식 장면(사진왼쪽 법만 스님)



10일 열린 38회 동백연 경연대회 중 청소년 장기자랑 경연 모습

아졌다.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상(보물 제279호)과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보살 제280호), 참담암 지장보살(전북유형문화재 제33호)이 봉안되어 있어 삼장지장보살의 성지로 불리는 선운사에서의 지장보살 특별전은 지장보살 복장물과 지장보살원경, 석씨 원류, 아미타경 등이 전시되고 있다. 이번 지장보살 전시회는 10월 16일까지 열린다. 이날 오후에는 정음 스님, 가수 김태곤, 우순실, 퓨전국악그룹 슬기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려 가을밤의 정취를 더했다. 이밖에 만세루에서는 선운사각화와 제남서각회의 서각전시회가 열리고 도량 곳곳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꽃무릇 시

화전이 열려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법만 스님은 "언제나 지역과 함께 해온 선운사는 이번에도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문화제도 즐기고 절정에 이른 꽃무릇도 감상하면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의 대표적 청소년 문화인화자인 '38회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이하 동백연)'가 9월 19일 선운사에서 열렸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효행사상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동백연에

는 지역학생과 학부모 1,500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선운사(주지 법만)와 고창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동백연'은 유치부 어린이부터 중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문화예술 부분과 민속경연부분에 참가해 자신들의 장기를 마음껏 발휘했다. 선운사와 전북체육인 불자연합회(회장 김도영)는 청소년 불자체육인으로서 탁월한 기량으로 국가체육발전에 장래가 촉망되는 임환희(축구 정음신태인 중학교), 유도 남은영(고창 영선고), 양궁 방현주(임실 오수중), 사격곽은서(전주 기린중), 근대오종 권성은(전북체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초의문화제, 해남 대흥사 일원서 열려

10월 10~11일 이틀간... 체험학습, 유적답사 진행

초의문화제가 10월 10일부터 이틀간 해남 대흥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초의문화제는 조선 후기 불교와 차의 부흥을 이끌었던 초의선사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공동위원장 법각, 대흥사 주지)가 주최하는 행사 첫날에는 대흥사 경내에서 지역 초·중학생들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통 차문화 체험'과 '떡차 만들기 체험학습', '다산과 초의가 함께한 차유적지 순례' 등이 진행된다.

한편, 제23회 초의상 수상자로는 설옥자 가예원 원장과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11일 기념식장에서 열린다.

일지암에서의 '초의선사에게 올리는 헌다례'를 시작으로 떡차만들기 체험과 행다 시연 등 다채로운 차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오후 2시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어린이 행다시연'과 '창작무-초의가 차를 말한다' 공연에 이어 '23회 초의상'과 '차학술 논문공모전' 등이 이어진다. 부대행사로 차 관련 상품 전시·판매, 도자기 빚기체험과 염색체험 등 일반인들이 차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다기·다구 및 해남 특산물 전시·판매장 등이 운영된다. 본 행사가 열리는 10월 11일 오전 8시에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생명나눔, 소아암 환자 돕기 작은음악회

소아암백혈병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생명나눔 음악회가 개최됐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9월 21일 무등산 일효사 입구에서 지역 홍보가수들이 동참한 가운데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과학이 발전했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곳이 많다. 고통속에 아파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생명나눔에 다함께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홍보가수 주권기, 전민균,



유미랑, 이운호 등이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행사장에 수익사업을 위한 음식이 판매됐다. 행사의 수익금은 치료비로 사용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유미랑, 이운호 등이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행사장에 수익사업을 위한 음식이 판매됐다. 행사의 수익금은 치료비로 사용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 자선음악회

9월 21일 군산 예술의 전당서... 소아암환자 가족에 성금전달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열렸다.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와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은 9월 21일 군산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차명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작은나눔 큰 기쁨, 큰 행복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 진안 마이산 탑산주지 진성 스님, 흥천사 주지 법희 스님 등 스님들과 성광문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승수 성흥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지역 불자 500여명이 참석해 소아암 환자

돕기운동에 동참했다. 자선음악회에 앞서 송월 스님은 군산시 사회복지관에서 추천한 6명의 난치병 어린이 환자 가족에게 각각 150만원의 치료비를 후원했다. 도산 스님은 "자비나눔의 음악소리는 방방곡곡에 끊임없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선음악회에서는 은소리 예술단, 테너 이계향, 가수 김삼배들이 출연해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 가족들을 위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백용성 스님 오도 128주년 찬탄법회

9월 22일 장수 죽림정사서 개최, 500여 명 참석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자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명인 백용성 스님의 오도 128주년을 찬탄하는 법회가 탄생지인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에서 열렸다. 9월 22일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열린 '용성조사 오도 128주년 기념법회'에는 도문 스님을 비롯해 정토회 상임지도법사 유수 스님, 수승행 용성조사유훈실 현후원회장, 정토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7여래불, 70전 등조사, 7대사 48선지식, 56조사 등 188

위에 대한 다례제가 함께 봉행됐다. 도문 스님은 "금어산 천년의 달이요, 낙동강 만리의 파도라. 고기잡이 배는 어느 곳으로 갔고, 갈대꽃에서 옛과 같이 자도다"는 용성 스님의 오도송을 읊고 "용성 스님께서는 오도를 하시며 대각사상을 선양하셨다. 자각, 각타, 각행, 각만의 대각사상을 실천하여 성불에 길로 나아가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 앞서 백용성 조사 유훈실 현에 공로가 큰 수승행 후원회장 등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 공군법당 신축이전 낙성법회

한국의 첫 번째 공군비행단인 제1전투비행단에 위치한 호국 금강사(주지 성해법사)가 9월 20일 신축법당을 이전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을 비롯해 500여 대중이 동참했다.

호국 금강사는 광주지역에 위치한 공군부대로 지난 2011년 화재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공군부대내 주거지역으로 이전했다. 군 예산 20여 억원과 불자들의 동참금으로 대웅전 78평, 생활동 145평의 시멘트 벽돌구조에 목조 양식으로 조성됐다.

대웅전 법당은 현대적 감각에 ??화와 단청을 통해 젊은 병사들의 취향에 맞는 시설로 꾸며졌다. 생활동에는 대중공양간, 종무소, 직감실, 어린이방, 다용도실, 복카페 등 다양한 현대적 시설이 들어서 군장병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웅전 앞 마당에는 석가탑



을 모형으로 하는 3층탑이 조성됐다. 낙성법회에서는 대웅전 헌판 제막식, 낙성법회, 삼층탑 제막식이 진행됐다. 정우스님은 법문을 통해 "신축법당이 완만히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부대의 관계자들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쾌적한 환경을 갖춘 신축 호국금강사에서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비신행회가 이날 자장면 500인 분을 공양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